

지역문화의 분권 실현을 위한 과제

—제주 지역문화를 중심으로

양영길*

차례

1. 머리말
2. 지역문화 인식의 근간
3. 지역문화의 분권 실현의 문제와 과제
 - 1) 문화사적 현실과 인식
 - 2) 지역문화의 지향점
 - 3) 분권적 인식의 근간
 - 4) 문화예술 정책과 팔길이 원칙
4. 지역문화의 분권 실현을 위한 지역 언론의 역할
5. 맺음말

1. 머리말

우리들에게 민족문화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지역문화란 또 어떤 것인가. 이러한 물음은 반성적 비판적 물음임에 틀림없다. 최근 들어 복고적 전통적으로 문화를 인식하면서 우리 문화를 찾으려는 노력을 열심히 하고

*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있지만, 대중문화 쪽으로 눈을 돌려보면 민족문화나 지역문화는 빈곤하기 그지없다.

민족문화는 세계 문화 속에서 우리 민족적 특성을 지닌 문화이며, 지역문화는 제주 지역과 같이 한국의 구체적 지역의 문화로서 지역적 특성을 지닌 문화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민족문화와 지역문화는 20세기로 접어드는 전환기적 혼란 속에서 일본지향의 계몽주의자들에 의해 미개문화로 폄하되어 비과학적이라느니 미신타파라느니 하는 신문명 속에 매몰되기 시작하였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무차별적으로 짓밟히고, 또 광복 후에는 서구문화에 의해 몰락의 길을 걸어야만 했다.

민족문화 몰락의 과정에서 지역문화는 더욱 처참하게 홀대를 당하면서 서서히 쇠퇴의 길을 가고 있다. 1970년대 들어 새마을 운동에 의해 지역의 고유문화는 ‘무지의 소치’이자 ‘비과학적 산물’로 치부되어 타파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허다했다. 제주의 노동요는 ‘새마을 노래’에 묻혀버렸으며, 지역 공동체 삶의 소우주적 정신 세계를 형성했던 ‘당신(堂神)’과 이에 따른 신화는 넓히고 포장되는 골목길에 그만 덮여 버리고 말았다. 그러면서도 ‘잘 살아보자는 운동’의 광기 앞에 넋을 잃고 우리 것들이 하나둘 사라져버리는 줄도 모르고 지냈다.

웨이드 데이비스(Wade Davis)는 “앞으로 백년 뒤, 20세기는 전쟁이나 기술혁신 같은 것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생물학적, 문화적 다양성의 대대적인 파괴를 지원한-또는 수동적으로 승인한- 시대로 기억될 것”¹⁾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는 “지난 25년 동안만도 100만의 생물종이 멸종되었다. 그런데, 우리는 생물종의 상실을 한탄하면서도 동시에 그에 필적하는 손실 즉, 인종권(ethnosphere)²⁾이 좁혀어가고 있는 것을 방관하고 있다.”고 한탄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날 사용되는 6,000종의 언어들 중 꼬박 절반은 아이들에게 교육되지 않고 있다. 사실상 그러한 언어들은 이미 사멸하였다.”라고 하면서

1) 웨이드 데이비스(Wade Davis)의 「문화적 다양성의 소멸과 상상력의 위기」(녹색평론 -[http:// greenreview.co.kr/greenews/8WadeDavis.htm](http://greenreview.co.kr/greenews/8WadeDavis.htm)), 2000. 12.

2) 위의 글, 웨이드 데이비스는 ‘인종권’을 태고부터 인간의 상상력으로부터 생성된 모든 사상, 이상, 신화와 통찰의 총체로 정의하고 있다.

언어는 “인간 영혼의 광채이며, 정신세계가 물질계에서 표현되는 수단이다. 각각의 언어는 독특한 지적, 영적 성취를 나타낸다.”라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언어 존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언어들이 사라져 가는 것은 그 언어에 담긴 정신세계도 사라진다는 것이다. “모든 세계관들, 소멸되는 모든 문화들은 인간 삶의 가능성을 축소시킨다. 우리는 자연계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우주의 의미에 대한 직관도 잃어버린다. 우리는 온 인류가 직면하는 일상의 문제들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할 방법들을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또 그는 인류학자 마가렛 미드의 이야기를 인용하여 “우리가 점점 더 균질한 세계로 빠져들면서 개성 없고 일반적인 현대문화의 기초를 다져서 중국에는 유일한 문화로 남게 되는 것”이라면서 “인간의 상상력 전체가 단 하나의 지적, 정신적 모델의 한계 내에 갇혀버리는 것”이라고 근심하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이제 우리들은 인종권을 지켜나가기 위해 기층문화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의 종이 사라지면 그에 따른 우리들의 사고도 사라지고 다시는 되찾을 수 없게 된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인간 중심주의의 인식의 한계를 벗어나야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덩이에서 서로간에 조화로운 질서를 위한 문화 생태적 인식이 필요하다. 모든 존재의 삶이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복된 삶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딛고 서 있는 땅덩이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 생태적 사유는 우리들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사회의 상상력과 문화종은 지역 공동체의 역동적인 에너지임을 명심해야 할 것 같다.

2 지역문화 인식의 근간

문화관광부가 2001년을 ‘지역문화의 해’로 정하고, “사람·삶터·어울림”이라는 주제 하에 지역문화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21세기를 문화의 세기라 일컬으면서 문화예술 정책을 독임

제 행정체제에서 위원회로 전환하여 ‘자율·참여·분권’의 가치를 문화예술 현장에 확산시키고,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역문화는 “본래 국외자의 눈에는 차이점들만 보이고, 통일성이 보이지 않으며, 그 문화의 일원에게는 통일성은 막연히 감지되나, 특성은 자각하기 어려운 속성”³⁾을 지닌 것이다. 또 역사와 관련하여 보면, “‘일반사를 지방에서 증명하기 위한 역사’나 ‘중앙을 의식한 역사’가 아니라 ‘땅에 새겨진 역사, 땅속에 묻힌 역사, 땅과 함께 전해져 온 역사를 지방의 향기와 함께 전하는 것’”⁴⁾으로 인간성을 우선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지역문화에 대한 자각은 20여 년 전인 1983년에도 ‘지방문화육성’책을 내세워 지방문화에 대한 관심을 기울인 바 있다.⁵⁾ 그리고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던 1991년 6월에 『문화과 지역』이 창간되었는데, 여기에 실린 전국공동지역문화협회의 「지역문화·문화운동 선언」문은 지역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 지평을 열어주기도 했다.

우리는 지역문화운동에 수평적 평준화운동을 주도해 나갈 것이며 자율적 문화공간 위에서 지역과 지역의 만남의 고리를 형성하여 각 지역 간의 고유 정서와 특수한 삶의 양식을 문학으로 형상화하고 문화적 봉건성이나 종속성을 탈피, 민주성을 회복하여 통일에 이르는 민족공동체적 방법을 탐색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
- 3) 김진하, 「한국문학에서 독자적 단위로서의 제주문학」(『제주작가』 5호, 2000. 11.).
 4) 하가·노보루(芳賀 登), 『地方文化의 保全』(呂博東·小林幸夫 共譯)(과학교육사, 1985), 10쪽.
 5) 당시 출판된 부산소설가협회 발행 『소설열네마당』(부산문예사, 1983) ‘책 머리’를 보면 지방 소외의식이 얼마나 팽배해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한국은 있으되 한국문화란 없다. 오직 서울문화가 있을 뿐이다. 어디 문화뿐이라만, 오죽하면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라」고 했을까. 인구의 35%, 문화시설 55%, 문화행사 72%, 출판 94%가 서울에 밀생해 있다. 가히 <서울공화국>이라 할 만하다.

그닥 넓지도 않은 같은 땅덩이 안에 살면서도, 다만 서울사람 아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같은 세금 물면서도 나머지 65%의 국민들은 내팽개쳐진 문화적 더부살이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 중 략 >

이런 지역문화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삶의 개체적 의지, 문화기류 형성에 개체적 의지로서의 삶의 정신을 집단 논리에 종속시키지 않는 자세가 전제되어야 하며, 지역적 연대감과 개성 또는 향토성을 큰 고리로 형성, 민족공동체로 끌고 나가 보편적인 통일의 원리에 도달해야 합니다.

또 1996년 문화복지기획단에서 개최한 <21세기 문화복지 대토론회>가 있었는데, 1996년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문화적 권리⁶⁾를 들어 헌법에 문화권을 새로운 기본권으로 제정하자는 주장이 있었다.

첫째, 소극적으로는 예술창작 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을 자유권적 기본권 둘째, 누구든지 차별 받지 않고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평등권적 기본권 셋째, 적극적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하여 국가에 법적 제도적 권리를 요구하는 사회적 기본권⁷⁾

2000년 6월에는 '21세기 한국문화의 또다른 길-지역문화연대'를 위한 <2000 충북·제주 문화예술교류 종합토론회>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김승환은 신지역주의를 내세워 지역문화예술의 새로운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신지역주의가 이전의 지역주의와 다른 것은 무엇보다도 중앙 중심 체제를 적극적으로 해체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는 점이다. 모든 지역은 각자의 독자적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인위적인 지배나 통제를 받아서는 안 된다. 과거의 구지역주의가 지방색을 탈색하지 못하고 지극히 감정적이며 배타적이었다면 신지역주의는 지방이 아닌, 지역으로서의 논리적 근거를 가진

6) 세계인권선언 27조 가) 누구나 모두 공동체의 문화적 삶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즐기며, 과학의 발달과 그 혜택을 공유할 권리를 지닌다. 나) 누구나 모두 자신이 저자가 되는 과학적·문화적·예술적 생산으로부터 나오는 도덕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지닌다. 권경우의 「문화권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한 때」, 『민족예술』 46호(한국민족인총연합회, 1999. 5), 12쪽에서 재인용.

7) 권경우, 「문화권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한 때」, 『민족예술』 46호(한국민족인총연합회, 1999. 5), 12쪽에서 재인용.

개방적 체제여야 한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하고 싶다. 근본적으로 신지역주의는 각 지역의 평등을 목표로 하며 불평등을 최소화하고자 한다.⁸⁾

그리고 2001년 문화관광부가 지정한 <지역문화의 해>가 있었다. 그 결과는 지역문화를 제대로 정립하는데 관심이 모아지기보다는 발전사관에 의한 인식과 경제적 관점에서 '발전과 개발'을 지향하는 오류를 범하고 말았다. 그래서 "지역문화 신탁통치의 해", "지역문화 대리 경영의 해"⁹⁾라는 비판의 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지역문화의 해>를 반성하는 비판적 인식이 싹트면서부터 지역문화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 2003년 6월 한국문화예술재단의 후원으로 지역문화네트워크가 주최한 <지역문화 활성화와 문화분권을 위한 대토론회>가 있었다. 지역문화네트워크에서는 10대 과제를 선정하기도 하였다.

1. 문화분권화의 추진
2. 지역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3. 지역문화정책 및 행정체계의 개선
4.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5. 시민의 문화 참여제도 활성화
6. 문화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활성화
7. 지역문화시설 활성화
8. 지역문화 재정 확충
9. 지역문화 정보화 촉진 및 문화정보시스템 활성화
10. 지역간 문화교류 활성화

지역문화에 대한 논의의 흐름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논의가 쉽없이 이어져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필자는 그 동안 「지역문학사 서술 방법론」(『영주어문』 3집, 2001. 2), 「제주 지역문학사 서술의

8) 김승환, 「지역문화예술의 새로운 전망-신지역주의」, 『21세기 한국문화의 또다른 길-지역문화연대』, 2000년 6월 충북·제주 문화예술교류 두 번째 종합토론회 자료집.

9) 임재해, 『지역문화 그 진단과 처방』(지식산업사, 2002), 4쪽.

전제와 과제」(『백록어문』 17집, 2001. 2), 그리고 「지역문화의 수평적 평준화는 가능한가」(『제주작가』 6호, 2001. 6), 「지역문학과 근대성」(『제주작가』 10호, 2003. 6) 등 대체적으로 지역문학과 관련하여 살펴본 바 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지역사에서의 근대성은 동학혁명을 기점”으로 이야기하면서 그 의의는 중앙으로부터의 독립, 계급으로부터의 해방을 들어 “궁극적으로 지역문학에서의 근대성은 지역적 자각에서부터 비롯된다. 지역적 자각을 통하여 지역의 특수성과 독자성을 바탕으로 각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토대로 민족문학을 실천하는데 있다.”¹⁰⁾고 주장한 바 있다. 그리고 “지역문학사는 중앙문학사의 지방판이거나 현실 문제를 외면한 위축된 부록이어서는 안 된다.”면서, 중앙의 상징적 억압으로부터 탈피, 생동하는 문제를 골간으로 하는 역동하는 문학사가 되기 위해서는 “질 낮은 정실주의, 지방적 수동성 등을 극복해야 한다.”¹¹⁾는 논의를 펼친 바 있다. 또 “지역문학사에서 표준형을 찾는 결과를 초래하여 중앙문학사의 부록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면서 “만약 제주 지역문학사가 실증에 그쳐 한국문학이라는 중앙의 역사적 사실을 제주지역에서 검증하는 것이 된다면 이는 단순히 제주라는 지역을 빌린 것일 뿐이며 중앙의 하청에 불과하게 된다.”¹²⁾는 점도 지적한 바 있다.

지역문화는 정치·경제적 수난사를 비롯하여 자연적 수난사, 문명사적 수난사 등에 복류(伏流)하고 있는 정신적 차원의 것이다. 그러므로 지역 정서의 생태, 가치체계, 세계관, 세계 인식 방법, 질서원리, 정념 등의 여러 갈래와 그 변화 추이를 추적하여 그 변동 원리와 그 지역의 구심성과 원심성을 밝혀낼 수 있어야 지역문화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역문화에는 생존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고투, 생산과 공동체의 유지를 위한 지혜나 윤리가 오랜 시간에 걸쳐 여과되어 지하수처럼 흐르고 있다.

10) 양영길, 「지역문학과 근대성」(『제주작가』 10호, 2003. 6).

11) 양영길, 『한국문학사 인식 어떻게 할 것인가』(푸른사상사, 2001). 60~61쪽.

12) 위의 책. 79~80쪽.

3. 지역문화의 분권 실현의 문제와 과제

1) 문화사적 현실과 인식

우리 민족문화의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 우리들은 민족문화의 토양 위에 무성한 나무만 보고 땅 밑을 지탱하고 영양을 공급하는 뿌리는 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영양공급을 해 주는 최전방의 잔뿌리는 아예 무시했다고나 할까. 우리 민족문화의 뿌리는 분명 여러 지역에 뻗어 있는 뿌리임에도 그 나뭇가지의 지향점은 서구의 틀을 바라보고 있으니 그 나무가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민족문화다운 지향점도 없기 때문에 전망부재 현상을 자초하고 서구문화의 흐름에 쫓아가기 바쁜 것이 문화사적 현실이다. 서구적 기준의 발전 법칙에 경직되어 유연한 인식 시야를 가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고 진정한 지역문화를 울곧게 세우기 위해서 물을 을 제기하고 이에 대답해 나가야 한다. 이에 대하여 기본적인 입장은 그 지역 공동체 삶의 총체성 위에서 인식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즉, 그 지역 공동체의 기원, 성장, 비대, 분화, 분열, 해체, 재구성 등과 관련¹³⁾시켜 중층적·다원적 구조 위에서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중층적·다원적 구조 속에는 그 지역 정서의 심층과 문제들이 숨쉬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지역의 표층을 흐르는 역사와 '복류하는 역사' 속에는 자연적·지리적 환경은 물론 사회·문화·정치·경제적 환경이 정화되어 약동하고 있다.

13) 지역이 비대해지거나 분화되는 원인을, 마에다 나리무미(前田成文)는 첫째 '자연 재해, 전쟁, 파괴라는 파국적 압력에 따른 국면', 둘째 '모든 외문명의 수용', 셋째 '자생적, 내발적인 이단 소수파의 형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분화과정에서 변화의 속도는 "생활세계의 수준이나 이단 소수파의 인식이 다수 사람들에게 공유되는 과정은 가끔 장시간을 요구"하며 "시스템의 개조·변화에 의한 위로부터의 변화는 전체로의 파급"이 매우 빠르다고 설명하고 있다.(야노 토루 엮음, 『지역연구의 방법』(아시아경제연구회 옮김, 전예원, 2000, 340쪽).

2) 지역문화의 지향점

그러면 이러한 지역문화의 지향점은 어디에 있는가. 민족문화의 지향점은 일제강점기 때는 일본을 향해 있었으며, 6·25 전쟁을 겪은 다음부터는 그 지향점이 서구를 향해 절대적이었다. 한국적인 것은 미국적인 틀 속에서 인식되었고, 지역적인 것은 중앙적인 인식의 틀 속에서 획일화되었다. 중앙적인 것을 바탕으로 지역을 업신여기고 지배하려는 불순한 권력이 자리잡고 있었다. 지역은 중앙을 위해 있을 뿐이었다. 지역문화를 지역사회의 담론으로 보아야 함에도 중앙의 틀 속에 갇혀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광복이 되어도 일제강점기의 식민사관이 중앙 문화권력 중심사관으로 바뀌고 그 지향점이 황국신민에서 서울 지상주의로 바뀐 것뿐이었다.

이제 제주 지역문화를 분권적으로 인식하여 중앙문화나 다른 지역문화와의 관계를 횡적 관계로 전환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제주 지역의 삶의 방식과 다른 지역의 삶의 방식이 다르듯이 문화를 향유하고 인식하는 체계와 정신도 지역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필자는 “지역문화는 지역적 삶의 방식과 정신 속에서 생성·성장하고 다듬어진다. 거기에는 삶의 원리와 관련되는 힘이 약동한다.”¹⁴⁾고 주장한 바 있다. 표면적이고 단기적인 문화 현상으로부터 탈피하여 지역 공동체 삶의 터전 심층(深層)에 지하수로 흐르는 장기지속적인 문화를 펴 올리면 지역 공동체의 집단 무의식이나 원형상징의 정체성을 읽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각종 수난에 대응하는 과정과 방법을 찾아 지역 공동체에 숨쉬고 있는 에너지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 좀더 체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그런데 제주 지역의 경우 오랜 세월 동안 ‘주변적 인식’이나 ‘변방적 인식’에 매몰되어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언제, 어느 계층에서부터 어떻게 발생했을까. 이는 탐라가 고려에 예속되면서 탐라 개국 신화에서 ‘개국’이거나 ‘건국’이라는 불순한 언어를 박탈당하여 한낱 세 성씨의 씨족 신화로 격하되면서 발생했을 수도 있다. 억압적인 중앙의 상징적 폭력 앞에서 제주는 결국

14) 양영길, 「지역문화의 수평적 평준화는 가능한가」, 『제주작가』 6호, 2001. 6)

주변이거나 변방일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다. '탐라 개국신화'라거나 '탐라 건국신화' 속에서는 중심부적 인식으로 세계를 쳐다볼 수 있었겠지만, 삼성신화에서는 내가 살고 있는 섬을 국가적 차원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중앙에 예속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변성이나 변방성은 한동안은 식자층의 의식에만 머물렀을 것이다. 땅이나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하는 일반 서민들에게는 '천지창조 신화'로부터 시작되는 제주의 서사무가를 바탕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덩이를 중심부로 인식했을 것이다.¹⁵⁾ 이에 대하여는 최원식은 탐라 건국 신화를 비롯하여 각종 신화가 육지와는 계통을 달리하고 있¹⁶⁾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김진하는 “제주를 중심으로 세계상을 구성하고 해석하는 근원적인 상상의 공간을 이루는 단초”¹⁷⁾를 보여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3) 분권적 인식의 근간

제주는 미개척지로서의 해석이 요구되는 '타형형 지역'이자 소우주의 군집으로부터 이루어진 '고립사회형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제주 지역은 '표준형을 만드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독자성과 특수성이 두드러진 지역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제주와 같은 타형형 지역, 고립사회형 지역에서는 지역문화를 개발한다거나 발전시킨다는 것 자체가 곧바로 파괴로 이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지역문화의 지향점은 발굴 보존 계승해야 하는 언어, 신화, 제의, 노동과

15) 양영길, 『한국문학사 인식 어떻게 할 것인가』(푸른사상사, 2001), 80쪽.

16) 최원식, 「지방을 보는 눈」, 『실천문학』 제40호, 1995. 218-219쪽에 의하면, “제주의 삼성혈 신앙은 땅 속에서 구멍을 통해 건국 영웅이 그것도 복수로 출현함으로써 육지와는 계통을 달리하고 있는 점이 극명히 드러나고 있다. 하느님이 아들이 하강하는 태백산의 산정에 솟은 신단수가 일종의 남근 신앙이라면, 탐라 신화의 구멍은 여근 신앙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구멍 숭배는 모계제의 흔적이 강한 폴리네시아의 여러 도서 지역에서 광범하게 확인되는 것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다.

17) 김진하, 「한국문학에서 독자적 단위로서의 제주문학」(『제주작가』 5호, 2000. 11).

같은 지역문화와 의식주와 같이 응용 개발할 수 있는 지역문화를 구분하는 일부터 선행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박물관의 전시나 보관처럼 정적(靜的) 보존에만 머물러 가치의 재발견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 그 의미가 퇴색되고 말 수도 있다. 따라서 분권적 인식의 근간에는 지역적 자각을 바탕으로 자긍심을 갖고 역동적으로 계승하여 건강한 생명력을 부여한다는 의미도 함의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주 지역문화를 올바르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급한 대로 30여 년 전으로 거슬러가 보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새마을 운동으로 몰락의 길을 걸었던 지역문화를 점진적으로 복원해 보자는 것이다. 지금은 탐라문화제로 바뀐 한라문화제의 경우 2005년 44회를 치러 왔지만 군사정권이 들어선 1960년대에 시작하면서 모든 것을 개발 독재 방식으로 처리함으로써 제주 지역문화의 정체성이나 특수성을 제대로 드러내기는커녕, 오히려 왜곡 변질시켜 지역 불명의 보편적 문화에 오염시켜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았는지 반성해 보아야 할 것이다.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를 통해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장관상과 상금이라는 당근정책으로 그 명맥을 유지하려 했지만 작위적 요소를 가미하여 전통 음식에 화학조미료를 사용한 꼴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면면히 이어지던 전통을 행사용 박제로 만들어 전시용으로 사용하면서 개발에 멍들게 해 버린 것 같아 안타까울 때가 많다. 경연대회용으로 개발하여 1회용 행사를 치르고 점수를 매겨 놓고는 '한 건했다'는 실적을 올려 상을 타고나면 손을 털고 일어나 다른 끼리를 찾아 나서도록 문화예술 정책이 추진되고 만 것이다. 성과 위주의 전시행정이 빚어낸 결과라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지역문화의 개발은 잘 하면 약이 되지만 잘못하면 파괴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극단적인 이중적 의미의 '파머콘(pharmacon)'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역기능적 '파괴'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없는 개발은 결국 '독약'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4) 문화예술 정책과 팔길이 원칙

때문에 문화예술 정책과 관련하여 ‘팔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이라는 것이 있다. 문화예술 단체와 예산을 지원하는 기관 간에 그 접촉의 거리를 ‘팔길이’ 보다 가까이 하지 말라는 이 원칙은, UN이 제정하여 세계의 공직자들에게 지키도록 권고한 행동강령이기도 하다. 영국을 비롯한 서구에서는 이미 보편화되어 문화정책이나 각종 규제 등의 분야에서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특히 문화예술에 대하여 이 원칙을 강조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문화예술 활동 자체의 자율성을 지켜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될 때 독창성이 존중될 수 있고, 또 종(種)의 다양성을 잃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간섭을 하게 되면 그 만큼 규제를 받게 되어 창작성과 지향성이 왜곡되거나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문화의 정책기조에 대하여 임재해는 “지역주의에 의한 문화자치와 문화민주화의 실현”에 두어야 한다.”면서, “더 구체적으로 제안하면 첫째 지역문화의 자립화 정책, 둘째 지역문화의 자치화 정책, 셋째 지역문화의 특성화 정책, 넷째 지역문화의 재창조 정책, 다섯째 지역문화의 민주화 정책, 여섯째 지역문화 독립화 정책, 일곱째 지역문화 연대화 정책 등을 기조로 삼는다.”¹⁸⁾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동연은 “문화정책의 민주화는 곧 국민들 각자가 문화적 주권을 누리는 한층 적극적인 문화권리이다. 우선 문화의 자유를 오랫동안 억압했던 검열장치나 지배이데올로기를 확산하는 관제문화 행사들, 그리고 관료적 문화행정과 같은 국가의 지배문화 정책의 폐해를 극복해야 한다.”¹⁹⁾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의 문화예술은 정치적, 경제적인 미시적 판단에 좌우되어 순수한 지원을 받지 못하면 향토성이나 창의성은 대중성에 함몰되어, 지역적 특수성

18) 임재해, 위의 책, 119쪽.

19) 이동연, 「문화민주주의에 대한 몇 가지 구상」, 『민족예술』 46(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1999. 5), 17쪽.

을 살려 나가려는 실천적 의지가 나약해질 수밖에 없다. 정치인들의 간섭이나 행정편의주의적 인식은 대중의 동원에만 치우쳐 왜곡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주민의 참여나 수익성을 잣대로 평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문화예술정책은 문화예술의 특수성 자체를 무시하는 무지의 소치가 아닐 수 없다.

4. 지역문화의 분권 실현을 위한 지역 언론의 역할

문화관광부가 2005년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전국 지방일간지를 대상으로 종합 평가하여 '전국 5대 지방일간지'를 선정하여 지원해 주고 있다. 6년 한시범으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이 위원회에서는 2005년에는 제주의 한라일보를 비롯해서 매일신문, 대전일보, 강원일보, 경인일보가 '전국 5대 지방일간지'로 선정되었다. 한라일보의 경우 <한라산 대 탐사>와 같은 장기 프로젝트의 기획으로 지방의 특색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지역적 한계를 뛰어넘었기에 얻어낸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지역 언론으로서의 지역문화에 대한 기획이 두드러진 사례는 많겠지만, 제민일보의 <4·3을 말한다>, MBC 라디오의 <한국민요대전> 사업, 제주일보의 <세계의 산맥을 가다> 등이 있다.

한라일보는 1998년 8개 분야 전문인으로 구성된 '한라산 학술 대탐사단'을 통해 <제주 생명의 원류 계곡과 하천>이란 주제로 한라산에 근원을 두고 있는 계곡의 자연생태와 문화적 특성 등을 연재하였다. 또 이 탐사단이 2000년 8월 24일에는 중국 연변지역 학술탐사를 실시하여 백두산과 두만강변의 지질, 식물, 곤충 등을 한라산과 비교 연재하기도 했으며, 『천미천』(2000)과 『효돈천』(2001) 등을 출판하기도 했다.

제민일보(濟民日報)는 1990년 6월 2일 창간 기획특집으로 주 2회에 걸쳐 <4·3은 말한다>라는 제목으로 연재한 바 있다. 그 동안 권력에 의해 금기

되었던 제주 4·3의 진상을 밝혀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 이 연재물을 바탕으로 1999년 8월 28일 456회까지의 내용을 단행본(全 5권)으로 출판하기도 했다.

MBC 라디오의 <한국민요대전>(1989~1992) 사업은 제주민요의 경우는 1989년 1월부터 7차례의 현지 장기 출장과 1991년 7월 보충 취재로 완료되었는데, 녹음된 민요는 제주도내 38개 마을의 민요 60여 종이며, 곡 수로는 500여 곡에 달하고 있다. 방송 자료는 문자화 이전의 살아있는 기초 자료이기도 하다.

그리고 제주일보는 1997년 다른 지방 일간지 6개 사(강원일보, 광주일보, 대전일보, 매일신문, 부산일보)와 '춘추사'로 명명된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취재팀을 구성하여 2001년 7월 세계의 오지를 취재하고 <대탐사 세계의 산맥을 가다>라는 제목으로 연재한 바 있다.

작금에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세계화·지방화를 표방하면서 지방 분권화를 목표로 행정적 정치적 역량을 모아나가고 있다. 이러한 때에 지역 언론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지역사회와 지역문화 발전의 견인차이기 때문이다. 지역 언론으로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역문화의 주권회복을 통한 문화 자치 실현을 위해 건강하게 활동하는 것이다. 지역의 사회문화 담론을 건강하게 선도하면서 지역문화의 훼손 변질을 비판 감시하고 연중 기획으로 봄을 조성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라산 대탐사>나 <4·3은 말한다>와 같이 그 지역에 국한된 지역문화의 뿌리를 찾아내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 동안 지역문화를 아끼는 인사들에 의해 학술적으로 정리 보존하려는 노력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언론에서는 그 인식이 학술적 열정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지역문화를 지역주민들에게 일반화하여 생명력을 부여하는데 많은 한계를 안고 있다.

지역문화에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언론사 차원에서 메세나 운동을 병행해 나가야 한다. 현재 한국메세나협의회가 1994년 출발하여 여러 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그 수혜가 지역의 문화예술에까지 미치기에는 요원한 것

같다. 이 기회에 지역언론에서 매세나 운동을 병행하여 기업과 주민들로부터 관심을 유도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전문가 그룹이 포함되는 학술 단체의 참여와 다매체 시대에 걸맞게 신문과 방송이 공동으로 기획하여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렇게 될 때 매세나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주민, 신문사와 방송사, 그리고 전문가가 함께 하는 문화 프로젝트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지역문화를 발전시킨다는 의미는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말일까. 지역문화 자체는 결코 발전시키는 대상이 아니다. 때문에 지역문화에 대한 언론의 역할은 그 원형을 발굴 보존하면서 계승해 나가는 과정의 자연스런 흐름을 잘 파악해 나가는 일일 것이다. 자칫 ‘개발한다’, ‘발전시킨다’는 강박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지역문화의 본질을 호도하고 변질시킬 수도 있다. 전문가 집단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을 통해 반문화적 인식을 견제하면서 파머콘적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김승환은 “실제 문화에서는 진화론(進化論)이나 적자생존(適者生存)과 같은 이론이 옳은 것은 아니다. 인류의 생존사라는 전제만 있다면 문화예술은 초역사적으로, 초공간적으로 등가(等價)이다. 어찌 오늘의 문화가 신라시대의 문화보다 발전했다고 할 수 있으며 또 어찌 아프리카의 문화가 미국의 문화보다 못하다고 할 수 있으랴! 각 문화는 제 각각의 존재 이유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삶의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이며 고귀한 인간 생활의 총체(totality)”²⁰⁾라고 강조하고 있다. 발전사관의 오류에 빠져 초가집을 헐고 슬레이트를 덮는 식으로 지역문화 개발 운운한다면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범하는 일이라는 말이다. “지역문화를 토속 취미나 신비 취향을 만족시키는 대상으로 이해”²¹⁾하는 제1세계와 문화권력자들의 과오를 범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지역문화는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의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며 개인사의 전망을 세우듯 자신의 일로써 지역문화

20) 김승환, 「지역문화의 해와 지역문화 A Seminar for The Year of Regional Culture」, 세미나 자료(충북민예총 예술사업위원회 주관, 2001. 1. 3).

21) 위의 글.

의 전망을 세우려는 의지가 없으면 결코 보이지 않는 신기루(蜃氣樓)²²⁾이기 때문이다.

지역문화는 서로 다른 존재의 원리가 있다. 문화는 표층을 흐르는 단기적 문화도 있지만, 중기지속적 문화도 있고, '역사의 지하수'²³⁾처럼 장기지속적인 문화도 있다. 신문이나 방송의 기사를 찾아가는 기사와 찾아내는 기사로 나누다면, 찾아가는 기사는 단기적 문화에 해당될 것이며, 찾아내는 기사는 중기지속적 또는 장기지속적인 문화라 할 것이다.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 보도기사보다는 기획연재나 르포와 같은 중기지속적인 문화와 장기지속적인 문화를 찾아 서로 다른 존재의 원리를 읽어내는 일일 것이다.

"지방자치는 있고 문화자치는 없다."고 비아냥거리는 말이 있다. 지역 언론은 지역문화의 존재 원리를 찾아 분권과 자치를 실현하여 생명력을 불어넣고 지역 공동체의 삶에 주체적 자각을 심어주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5. 맺음말

한때 국가적 견지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민중의 생활이라든가 지방의 특질 등을 경시하였던 때가 있었다. 그것이 오직 국가 총력에 이바지하는 것

22) 위의 글.

23) 하가·노보루(芳賀 登)는 "역사의 지하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어떠한 흙탕물(泥水)도 지하수가 될 때 여과되어 정화된다. 민중의 생활, 민중의 윤리도 마찬가지이다. (...) 민중 자신은 그 지하수를 퍼 올릴 수원지(井田)의 소재를 알고 있으며, 또한 지하수는 무제한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고갈되는 때도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역사의 지하수, 바꾸어 말하자면 감춰진 지혜와 윤리의 지속성을 지식인이 알아차릴 때, 민중과의 사이에 새로운 결합, 새로운 신뢰관계가 생겨나리라는 것은 틀림없다. (...) 그들은 민화(民話)라던가 민요·전설·민예(民藝) 기타를 표층문화(상층문화)에 대한 기층문화라고 생각하고, 정점(頂點)에 대한 저변(底邊)의 사람들이 애호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하가·노보루(芳賀 登), 『地方文化의 保全』(呂博東·小林幸夫 共譯)(과학교육사, 1985). 154~155쪽).

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판단은 다양성을 말살시키고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잃는 결과를 초래했다. 지역은 중앙의 절대적 규정으로부터 헤어날 수 없게 만들어져 버린 것이다.²⁴⁾

그러나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되고 지역적 자각이 열리면서 지역문화와 그 정체성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 이를 두고 지역구심주의(local centripetalism)라 일컬을 만한 모습이 뚜렷하다는 주장²⁵⁾도 있다. 이는 지역의 가치를 찾고 지역과 지역 간의 연대를 통해 중앙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인식하려는 노력과 더불어 새로운 전망이 자연스럽게 대두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문화들은 역사와의 관계를 통하여 형성된다. 이러한 관계는 땅에 대한 깊은 애착과 자각에 의해 생명을 갖는 것이다. 땅을 중심으로 하는 생태적 환경은 곧 생명을 의미하는 문화가 되고 우리 인간은 이를 상상으로 포용·변형하여 역동적인 에너지로 바뀌어나가게 되는 것이 문화의 파생이라 할 수 있다.

우리들의 주변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나무가 잘리고 땅이 파이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지형이 바뀐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어서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이렇게 바뀌다 보니 할머니와 손자 사이에 기초 생활에 관한 대화마저 제대로 소통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다. 또 식생활도 할아버지 세대, 부모 세대, 아이들 세대가 각각 달라지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달라지는 만큼 잃어버리는 것이 많다는 것이다. 많은 생물종이나 문화종들이 우리 주변에서부터 사라져 버리면서 남아 있는 것들에 의해 우리들의 삶의 질이 협소해지고 있다. 바람직하게 바뀌는 것처럼 인식되지만 실상은 넓은 범위를 점점 빼앗겨 좁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들에게 ‘어멍, 아빱’, ‘어머님, 아버님’이란 말은 문자로만 남아 있을 뿐이다. 어느새 입말로서는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언어에 담긴 정신적 세계도 잃어버리고 있다. 21세기 말에 이르면 언어의 다양성은 500

24) 양영길, 위의 책, 63쪽.

25) 박태일, 『지역문화연구의 방향』, 『지역문화연구』 제2호, 1998. 3, 115쪽.

종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날 때, 우리가 잃어버린 언어만큼 사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 우리들에게 토속음식은 화학조미료에 찌들어 입맛을 빼앗긴 지 오래다. 미인의 기준은 우리 것을 잃고 다시 복원시켜 놓는다 해도 그 가치가 이미 왜곡되어 가치의 위상까지 복원시킬 수는 없게 돼 버렸다. 여자라는 말이 한자말이라고 해서 '계집'이라는 말을 복원시켜 사용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미 그 의미가 함의하고 있는 위상이나 기준의 위상이 변질되어 복원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졌다.

그러나 그 동안 매몰되고 변질되어버린 지역문화를 하루 빨리 복원시켜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복원시켜나가는 과정에서 진정한 문제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방식의 문화는 다른 인간형을 낳듯이 우리는 지역문화의 분권적 자각으로부터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 핵심어: 문화, 지역, 지역문화, 민족문화, 문화 분권

<참고문헌>

- 김경일 편, 『지역연구의 역사와 이론』. 문화과학사, 1999.
김문환, 『지역문화발전론』. 문예출판사, 1998.
야노 토루 엮음, 『지역연구의 방법』. 아시아경제연구회 옮김, 전예원, 2000.
양영길, 『한국문학사 인식 어떻게 할 것인가』. 푸른사상사, 2001.
이민호, 『사회구조사학』, 『현대의 역사이론』. 한길사, 1993.
임재해, 『지역문화 그 진단과 처방』. 지식산업사, 2002.
_____, 『지역문화와 문화산업』. 지식산업사, 2000.
전경수, 『지역연구, 어떻게 하나』.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하가·노보루(芳賀 登), 『地方文化의 保全』(呂博東·小林幸夫 共譯). 과학교육사, 1985.

<Abstract>

Assignment to Realize Decentralization of Authority of The
Local Culture

- Centering around the local culture of Jeju

Yang Young-gill

In the process of ruin of national culture, the local culture is much miserably on the decline; meanwhile, we are losing our ethnosphere. To protect it, it is indispensable to see basic culture in a new light. Beginning age of the local autonomy, awoken to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the interest of local culture and its true colors is raising rapidly. To realize decentralization of authority of the local culture, we should find the value of a region, make our efforts to perceive it being separated from the center through the solidarity between regions and show the new prospect.

- Key words: culture, local, local culture, national culture, decentralization of culture